

적조·태풍에도 끄떡없는 '먼바다가두리양식' 각광

여수시 12억 들여 삼산면 거문리 해역에 설치 기존 양식장 보다 20~30배 많은 물고기 양육



연안가두리 양식어장의 대체어장으로 추진중인 외해수중양식장 사업이 지난 달 27일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해역에서 실시된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강성훈기자 kangsw@

바닷속 깊은 곳에 설치하는 양식 시설인 '외해 수중 가두리' 양식방법이 적조와 태풍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수시는 삼산면 거문리 양양지선 1.2km 해역 5ha에 도비와 시비 6억 원을 포함, 모두 1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비행접시 모양의 대형 그물망인 수중가두리 4조를 설치하고 있다. 여수시가 수중가두리 사업에 나선 것은 기존 해상가두리에 비해 잠점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우선 수중가두리 1조의 부피는 5천700m로, 기존 해상 가두리에 비해 20~30배 이상 많은 양식어류 100t 가량을 사육할 수 있다. 또 가두리가 먼바다 속 10m깊이에 설치됨으로써 적조와 태풍 피해를 최

소화할 수 있으며, 구조물이 반영구적이고, 어병 발생률이 낮아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양식'이 가능한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견고한 철구조물로 만들어져 돌돔과 능성어, 참돔, 민어 등 고급어종을 양식할 수 있고, 바다 위에 돌출된 부분이 없어 선박 항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등 탁월한 해양환경 개선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밖에 일반 해상가두리와는 달리 어류 생존율을 9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데다 저비용으로 관리가 가능해 수익성 향상도 기대되고 있다. 수중가두리는 그러나 설치비가 기존 가두리 양식장에 비해 최고 7배 이상 비싸고, 수심과 조류가 조건에 맞

아야 하는 등 설치 조건이 다소 까다로운 점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여수시는 남해수산연구소와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경제성이 입증되면 수중 가두리 양식을 남해안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도 역시 올 하반기 신안군 흑산도 해역에 14억 원을 들여 외해 수중가두리를 설치하고, 완도 등 다른 시·군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명예 여수시민' 정몽구 회장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탄력'

鄭 회장, 시민증 전달 및시장에 "총력" 약속

오는 20일 명예 여수시민증을 받는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이 이를 계기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박차를 가한다. 여수시와 현대기아차 그룹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오현섭 여수시장이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를 방문해 정몽구 회장을 예

회 유치에 애쓰는 모습에 시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그룹 본사 로비에는 '오현섭 여수시장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여수시에 대한 현대기아차 그룹의 관심을 나타냈다. 이와함께 정 회장은 집무실이 아닌 엘리베이터 앞에서 오 시장을 맞이했으며, 환담이 끝난 뒤 현관까지 배웅해 눈길을 끌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14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회장실에서 정몽구 회장과 오현섭 여수시장이 '2012여수세계박람회' 홍보 패넬을 곁에 두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함평 담수어 양식장 '애물단지'

오수처리장 가동안돼 갯벌 오염·용수 부족 준공 3년째 예산 낭비·각종 민원 야기 논란

함평군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성한 '담수어(장어) 첨단양식단지'가 지난 3년간 오수처리장이 가동되지 않는 바람에 함평만 갯벌이 오염되고 인근 농지의 농업용수 부족사태를 초래하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함평군은 지난 2002년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손불면 석창리일대 8만6천여㎡의 부지에 총사업비 55억 원을 들여 10개 담수어 첨단양식단지를 조성, 2004년 3월 단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함평군은 그러나 첨단양식단지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의 경우 오수처리장을 통해 정화한 뒤 양식단지에서 재사용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오수처리장 가동을

미뤘다. 지하수를 재사용할 경우 양식장어에 어병(魚病)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양식업자의 반대가 컸던데다, 양식단지 초기 분양실적이 저조해 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오수처리장 가동비용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수처리장이 가동되지 않음에 따라 지난 3년여 동안 첨단양식단지에서 사용된 지하수가 정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바다에 버려지는 바람에 인근 함평만 갯벌이 심각하게 오염된 것은 물론 지하수를 용수로 사용해 온 인근 농지에서도 농업용수가 부족해지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민들은 이에 대해 양식단지 조성 당시 장어양식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치밀한 사전 분석작업을 거쳐 사업이 추진됐어야 함에도, 안이한 입지선정과 행정의 일관성 부재 등이 겹치면서 오수처리장 미가동과 갯벌 오염, 지하수 부족 등의 사태가 촉발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 모(63·손불면)씨는 "첨단양식단지에서 흘러나온 오수가 바다에 흘러들면서 소중한 갯벌이 썩고, 각종 어패류가 오염되고 있다"며 "또, 양식단지에서 지하수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농업용수가 턱없이 부족해지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오수처리장 시험가동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양식단지 입주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가동토록 할 계획"이라며 "오수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각종 갯벌 오염과 농업용수 부족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강진 청자촌에 늘어선 허수아비.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 부근 해안도로에 익살스런 표정과 화려한 복장을 한 허수아비 400여 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 허수아비는 임진왜란 당시 병사가 많은 것처럼 속이기 위해 허수아비 초병을 활용했던 엄길장군의 전투 장면을 재현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오는 9월 8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강진청자문화제의 부대행사이기도 하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추진 목포시, 우수 지자체 선정

행자부, 182곳 평가

목포시가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목포시는 "행정자치부가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담체계 개편 1, 2단계 지역 18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추진상황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2억 원의 사업비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주민 서비스 전담체계 개편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의지, 윈스톱 주민 서비스 시스템 구축, 쾌적하고 안락한 복지 상담실 설치 운영,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담당자 자체교육, 민·민협의체 구성 및 민간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등 각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는 1년 전 분산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를 주민복지국으로

개편 한 뒤 복지조사, 서비스 지원 담당, 동사무소에 생활지원팀장을 신설해 시민 중심의 찾아가는 봉사 행정 서비스를 실천한 점 등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시 관계자는 "복지, 문화, 교육, 주거, 교육 등 8개 분야 236개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가까운 동사무소나 시청을 찾아오면 주민에게 필요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피서철 영광원전 방문객 급증

지난달 7,500명 ... 평소의 3배

피서철을 맞아 영광원전 발전소 방문객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전본부에 따르면 여름철 특별 홍보를 시작한 지난달 20일부터 7일까지 7천

500여명이 영광원전발전소를 방문했다. 이는 평소 방문객 한달 5천명 선에 비해 3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원전본부 관계자는 영광군 홍보를 가마미 해수욕장과 전북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 해수욕장 등 인근 해수욕장에

이동홍보센터를 설치하고 매일 오후 2시에 발전소로 출발하는 셔틀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원전본부 관계자는 방문객들에게 원자력 관련 동영상을 상영하고 주 제어실, 핵연료 건물 등을 개방하는 등 원자력 발전소를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원전본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홍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피서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배추흰나비 인공사료 개발

함평군 국내 최초 ... 연중 실내사육·대량생산 가능

함평군이 국내 최초로 배추흰나비의 인공사료 개발에 성공해 사계절 실내사육과 대량생산의 길을 열었다. 15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전남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나비·곤충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인공사료 제조 개발에 착수, 1년여의 연구 끝에 인공사료 개발에 성공했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날 곤충연구소 세미나실에서 관내 나비곤충 사육농가와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추흰나비 인공사료용 분말 제조법', '인공사료 제조 및 포장법' 등을 농가에 기술 이전에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에 인공사료를 먹여 간편하게 애벌레를 키울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나비 관찰세

트 판매시 먹이식물로 사용하는 케일잎이 시들어 오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을 말끔히 해결하고 사계절 사육과 대량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나비·곤충마을협의회 최문재 대표는 "배추흰나비 인공사료 개발로 나비 사육농가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의 하나가 해소됐다"며 "사계절 실내사육과 사전 계획에 따른 대량생산이 가능해져 사육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준 농업기술센터 곤충연구담당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나비곤충 사육농가의 일손을 덜어주고 생산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호랑나비와 장수풍뎅이 등의 인공사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어장 황폐화 '주범' 불가사리 퇴치나서

보성군 내달 10일까지

보성군은 다음달 10일까지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불가사리 퇴치사업을 벌인다. 보성군은 1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불가사리 구제(剔除) 및 수매 사업을 추진한다. 어민들이 포획한 불가사리는 kg당 500원에 회천면 동음과 득량면 청암선착장에서 수매되며, 과수 농가 등에 무상으로 제공돼 유기질 비료로

사용하게 된다. 보성군은 지난해에도 220t의 불가사리를 수매, 수산자원 보호와 농경지 지력향상 등의 성과를 거뒀다. 보성군 관계자는 "효율적인 불가사리 구제는 패류 자원의 번식·보호는 물론 기르는 어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가사리는 바다 밑 모래밭에 살면서 패류 등을 닳치는 대로 폐사시켜 일명 '바다의 쥐'로 불린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어린이집 학용품 등 전달

무안우체국 직원

무안우체국은 지난 14일 무안읍 해오름 어린이집을 찾아 학용품, 삼계탕 등을 전달했다.(사진) 우체국 직원들은 매달 봉급에서 일 정액을 모아 소년소녀 가장 3명에게 매월 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직원들은 고객만족을 우체국 경영의 목표로 설정하고 고객센터 마



결과 매일 고객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병만 국장은 "장애우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무안=이병희기자 whlee@